예쁜 우리 숲, 건강한 우리 숲

우리 숲에는 아름다운 생명이
서로 공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나무와 꽃과 풀이 예쁜 숲을 이루고 있죠.
예쁜 생명이 오래도록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주의와 관심을 가져주세요.
건강한 숲을 만드는 작은 실천이 될 거예요.

www.forest.go.kr

산림청



ISSN 2383-6849
Vol. 11
March
April
2016

천태산과 매실나무

MAGAZINE 숲

발행일 2016년 4월 15일
발행 산림청
발행인 신원섭
기획 대변인실 magazinesup@korea.kr
기획/편집 (주)홍커뮤니케이션즈 www.hongcomm.com
사진 스튜디오 KENN

〈magazine 숲〉은 산림청에서 발간하는 산림 문화 전문 매거진입니다.
〈magazine 숲〉은 한국 간행물 윤리 강령 및 신철 요강을 준사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매실나무

梅實

봄이 오면 하얀색, 붉은색 꽃들이 만개를 이루고
여름과 가을 사이에는 열매가 알알이 맺힙니다.

봄에는 꽃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여름과 가을 사이에는 열매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니
그야말로 최고의 나무가 아닐까요?

이번 호 매거진 숲은
봄날, 흩날리는 매화 향기를 찾아 떠납니다.

Vol. 11
March.
April
2016





Contents

● 천태산과 매실나무

4. **단상**
봄을 부르는 나무
– 매실나무

6. **여행**
봄날으로 가자
– 양산 원동마을 · 통도사

12. **역사**
꿈에라도 밝히려야
– 퇴계 이황과 매화

16. **문화**
2월 화투에는 동네마다 다른 새가 앉아있다
– 화투와 매조

18. **인포그래픽**
변화무쌍 매실나무
– 매실나무 정보

20. **월드 트래블**
도심 속 오아시스
– 미국 보스턴 공원





22. **가드닝**
도시인을 위한 베란다 가드닝 안내서
– 베란다 가드닝

26. **산 그리고 사람**
아름다운 인생 시에 짊어지으리다
– 시인 김용택

30. **약초도감**
봄 기운이 쑤욱쑤욱
– 쑥

32. **어떤 날 숲**
운명처럼 널 사랑해
– 천리포수목원

36. **그린 테이블**
활력 부르는 봄철 밥상
– 참나물, 원추리

38. **숲에서 자라는 가치**
청춘백서 젊음에 고하노라
– 장성 백련동편백농원

42. **캠핑**
숲과 친구가 되는 방법
– 캠핑 놀이

46. **산촌일기**
자연이 만드는 삶
– 〈2화〉 산촌에서 임업인으로 살아가기

50. **아트테라피**
생각한 대로 느끼는 대로
– 매실나무

52. **독자 메시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 독자 엽서

표지 일러스트
박지애

www.forest.go.kr

〈magazine 숲〉의 앱 매거진을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梅實

단상

봄을 부르는 나무

꽃을 기준으로 한다면 매화나무, 열매를 기준으로 한다면 매실나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무어라 부르든 가치 있는 나무임은 분명하니까요. 어쩐지 매화나무라 하면 문학과 예술을 표상하는 듯하고, 매실나무라 하면 음식과 건강을 상징하듯 보이지 않나요?

사실 이 나무와 사람과의 인연은 꽃이 아닌, 열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청동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매실 열매 활용의 시초는, 매실을 원료로 만든 식초였다고 해요. 이후 매실은 약용으로도 사용했고,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사랑받는 식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매실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사람들은 꽃에도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매실나무를 관상용으로 심기 시작한 건 한무제(기원전 141~87) 때라고 합니다. 이후 수많은 시인과 문인도 매화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고아한 아름다움을 그들의 시와 그림에 담아냈죠. 조선 시대의 서화가 강희안(姜希顔, 1417~1464)은 '양화소록(養花小錄)'에서 매화를 이렇게 예찬했다고 하는군요.

첫째는 희소성이요,
둘째는 늙은 모습의 아름다움이요,
셋째는 군더더기가 없음이요,
넷째는 꽃봉오리가 벌어지지 않고 오므라져 있음이다

조선시대에 와서 매화는 사군자(四君子), 세한삼우(歲寒三友)로 자리매김했죠. 게다가, 임금님의 변은 매화라 부르고, 변기는 매화틀이라 불렀다고 해요. 우리 선비들이 매화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짐작할 수 있나요?

대지 위의 생명이 꿈틀거리는 봄날이 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매화가 곱게 피었다고 전해오네요. 매화가 진 후 신록의 계절이 찾아오면, 매실나무에 알알이 잘 여문 열매가 수확을 기다리겠지요. 매실나무가 전해옵니다. 이 땅에 봄이 왔다고요.



Special

梅實

여행

봄날으로

가자

양산 원동마을 · 통도사

숨 가쁘게 달려왔다. 봄은 그런 그대에게 주어지는 가쁜 날.
뎃없이 헤실 거려도 무안하지 않아도 되고
느닷없이 떠나고 싶은 마음 일렁여도 사치가 아니다.
적당한 핑곗거리 만들어 봄날으로 가자.

아름다운 것들이 눈에 밟히는 계절

겨울이 한바탕 진을 치고 지나갔다.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건, 생명이 아니라 어쩌면 봄을 이야기하는 노랫말일 수도 있다. 봄날이 오기만 기다리던 유행가는 선두권을 오르락내리락하고, 봄과 관련된 노래는 여기저기서 앞다투어 찾아온다. 옷장 앞에서는 오늘은 코트를 입어야 할지, 패딩을 입어야 할지 고민일랑 던져 버려도 된다. 옷은 이미 한결 가벼워졌고 마음마저 옷 따라 가벼웁다. 아니 글쎄 봄이 뭐라고.
봄 따라 콧바람 실컷 쐬고 싶은 건, 봄날만의 여유 아니겠는가. 여기저기서 꽃 소식 터져오니, 겨우내 봉인되었던 마음도 들썩거린다. 새 봄날, 아름다운 것들이 눈에 밟힌다. 아찔한 향기 내뿜으며 유혹하는 매화가 그러하다. 양산으로 가야지. 봄날의 특권과 호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곳은 죄다 남쪽에 있다.

우리 기쁜 봄날

새 봄날, 양산으로 향한 발걸음이 가볍기만 하다. 이른 새벽부터 출발한 탓에 봄날의 새벽 공기가 양껏 옷깃으로 스며든다. 봄기운 촉촉하게 머금은 공기가 차갑긴 하지만, 그래도 제법 괜찮다. 꽃 구경길이 절로 신이 난다.

원동마을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원동로 1421

1.
매화가 톡톡 터지는 봄날이 찾아왔다.

2.
매화나무 밭을 걷다 보면 그윽한 매화향에 매료된다.

양산에서 매화를 만날 수 있는 곳으로는 '원동마을'과 '통도사'가 있다. 먼저 원동마을로 향했다. 천태산 고개를 굽이굽이 넘어 원동마을에 도착했다. 시원하게 펼쳐진 낙동강과 굽이굽이 이어지는 산등성이가 제일 먼저 시야에 출몰한다. 이른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상춘객들로 꽤 붐빈다. 누가 봄맞이하러 온 거 아니랄까 봐 얼굴들이 싱글벙글한다.
때아닌 기차 경적 소리가 상춘객을 습격한다. 낙동강과 매화나무밭 사이, 경부선 철길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웬 기차인가 싶었더니 매화나무밭을 조금만 걸어 내려가면 '원동역'이란다. 원동역은 기차가 하루 10번 정도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이다. 이 경부선을 지나는 기차는 20~30분 주기로 획획 나타났다 사라진다. 낙동강은 유유히 흐르고 건너편 산등성이는 평온하기만 한데, 기차 제 혼자 분주하다.
낙동강과 매화나무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에 올라섰다. '2012년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선정된 곳이다. 전망대에 서 있자니 원동역에서 오는 상춘객이 한 명 두 명 모여들기 시작한다. 전망대에 옹기종기 모여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카메라를 손에 쥐고 한순간만을 기다린다. 기차가 순식간에 지나가니 그 순간을 기록하려는 상춘객의 손놀림이 빨라진다. 잠시 딴짓이라도 하면, 넉넉잡아 30분은 기다려야 하니 그것참 애가 탄다.
매화나무밭 사이와 낙동강 사이에 하나 더 자리하는 게 있다. '순매원'이다. 이곳에서 상춘객들은 매화향기에 한 번 취하고 막걸리 한 사발에 한 번 더 취한다. 매화나무 아래서 고소한 지짐이 한입에 시원한 막걸리 한 잔 들이켜니 상춘객들은 그저 흥에 겹다.
"사진 좀 찍어 주실 수 있나요." 상춘객이 카메라를 내민다. 기꺼이 응답해 주고, 이 방향 저 방향 요리조리 권하며 사진을 찍어줬다. 다 같이 달뜬 마음에 동참해 본다.









3. 4.

3.
통도사 주차장부터 시작되는 무풍한 송길. 하늘을 향해 쭉쭉 뻗어있는 소나무가 그야말로 장관을 이룬다.

4.
통도사 경내에 들어서자 매화나무 두 그루를 만날 수 있었다. 고혹적인 자태. 강렬한 붉은 빛은 그 특별함을 더한다.

배내골 방향의 '영포마을' 역시 매실나무로 가득한 동네다. 광양이나 하동처럼 아직 널리 알려지진 않았으나, 그에 비견할 만큼 아름다운 것은 자명하다. 옹기종기 가지에 매달린 매화를 보고 있자니, 톡톡 팝콘 튀기는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다. 조막만 한 매화가 옹기종기 매달려있으니, 어찌 그리 탐스러운지 모르겠다. 시야를 조금만 넓게 살피어 보면, 이색적인 풍경도 눈 앞에 펼쳐진다. 매화나무가 뒤덮인 곳은 하얀 꽃들로 가득한데, 주변 산등성이에는 아직도 가지가 앙상한 나무로 가득하다.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매화는 봄을 알리기 바쁜데, 여태 잎을 매달지 못한 나무를 보고 있자니 거참 게으르다 싶다.

소나무와 홍매화

양산은 수려한 고찰과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곳이다. 특히 통도사는 양산의 명소로 첫손에 꼽힐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646년(선덕여왕 15)에 자장율사가 중국 당나라에서 가져온 부처의 사리, 가사, 대장경을 금강계단에 봉안한 후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합천 해인사, 순천 송광사와 함께 삼보사찰(三寶寺刹) 중 하나로, 부처님의 진신 사리와 금강 가사를 모시는 대표적인 절이다.
통도사에는 암자가 무려 19개나 있다. 암자 순례길로 불리는 암자 종주 코스는 장장 22km다. 그래서 암자만 둘러 봐도 하루 반나절이 금방 지난다.
통도사를 거닐다 보면 두 가지에 매료된다. 통도사 주차장부터 시작해 일주문까지 이어진 '무풍한송길(舞風寒松路)'을 걸으며 한 번, 경내에서 고아한 자태를 뽐내며 서 있는 매화나무에 한 번.
무풍한송길은 '춤추는 바람에 따라 차가운 기운의 노송이 물결친다'는 뜻이다. 이름 한번 잘 지었다. 바람은 춤추고 노송은 물결친다니, 시에 견주어 버금가는 풍경이 펼쳐진다. 무풍한송길에 들어서자 일주문에 서 있는 사천왕과 아름드리 소나무가 다를 게 무엇인가 싶다. 그 모양도 독특해 절로 숙연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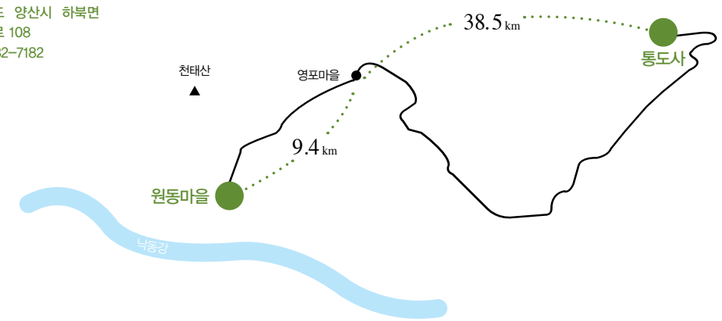
5.
오래 묵은 나무 기둥에서 세월의 흔적이 목도된다.

통도사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절이다. 자장율사가 중국 당나라에서 가져온 부처의 사리 · 가사 · 대장경 등을 금강계단에 봉안하고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 주소 : 055-382-7182

길옆 작은 개울가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귀를 적신다. 울창한 소나무와 청량한 물소리의 합이 그야말로 일품이다.
주말도 아닌데 통도사는 방문객들로 북적거린다. 홍예교를 지나 경내에 들어서자 자못, 경건해진다. 오래 묵은 나무 기둥에서 세월의 흔적이 목도된다. 빛바랜 사찰 단청(丹靑)은 본래 나무의 결을 그대로 드러냈다. 봄날 이고 온 설렘과 기쁨을 잠시 내려놓았다.
영각과 극락전에서 매화나무를 만났다. 늙수그레한 매화나무 두 그루가 사이좋게 거리를 두고 서 있다. 아니다. 이 나무 두 그루에 늙수그레하다는 표현은 좀처럼 어울리지 않는다. 360살이 넘은 고목인데도 여전히 생기가 넘친다. 통도사에는 백매화, 청매화 그리고 홍매화가 고루 있다. 그중에서도 홍매화가 단연 최고다. 고혹적인 자태는 말할 것도 없고 강렬한 붉은 빛은 그 특별함을 더한다.
겨우내 기다렸던 봄이 도착했다. 이 땅 위에 생명을 가득히 채우며, 쏜살같이도 도착했다. 봄날만의 특권을 호사롭게 누비는데, 때아닌 아쉬움이 밀려든다. 봄날이 그리도 아름다운 건, 찰나에 빛나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아쉽고 또 알기 때문에 기쁘다. 봄날의 순간이 자늑자늑 흔들린다.



5.



Special

梅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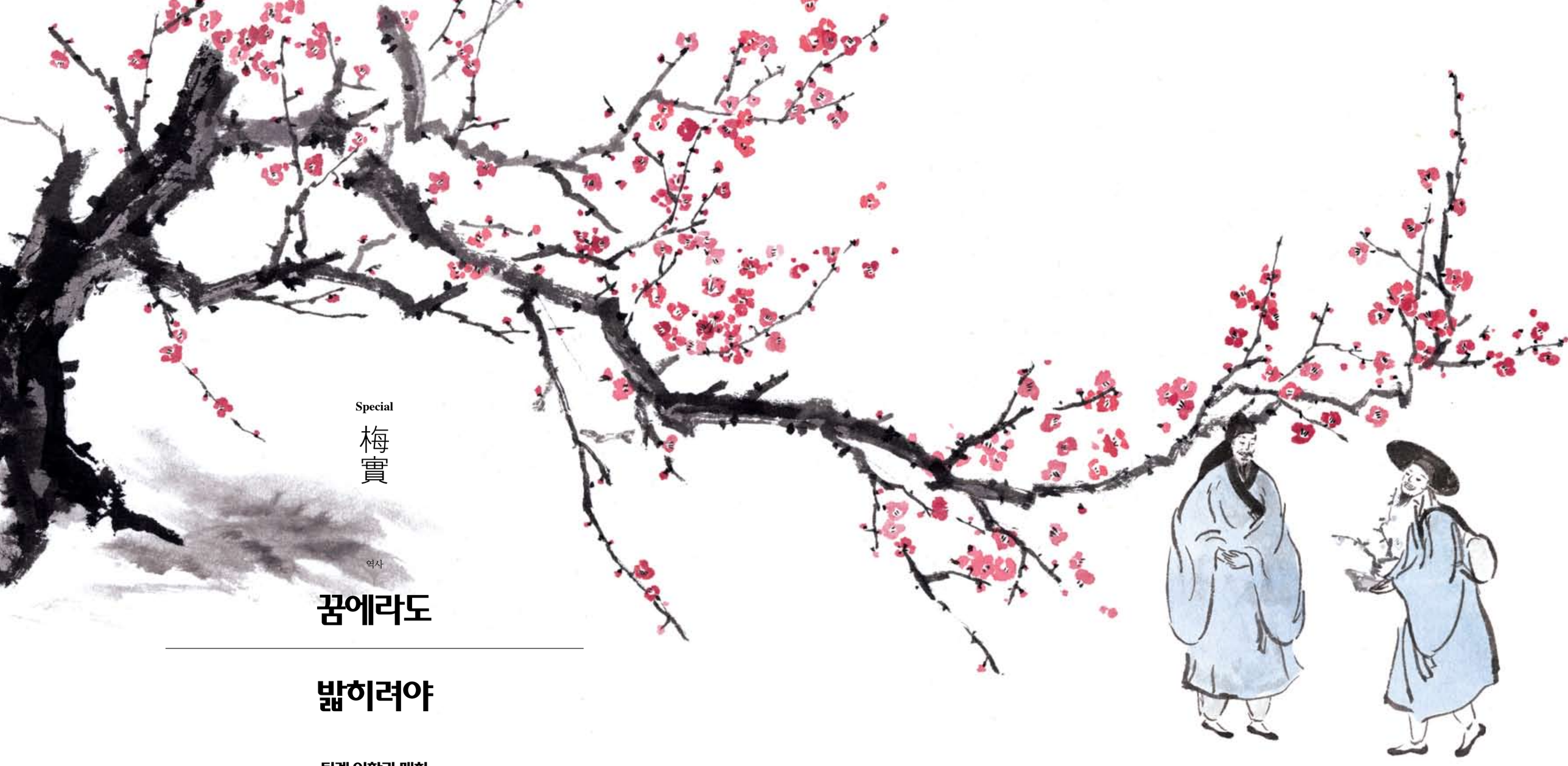
역사

꿈에라도 밟히려야

퇴계 이황과 매화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석학(碩學), 퇴계 이황! 그가 평생 연구한 '경'은
중국에서 수입한 성리학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도산서당 절우사의 매실나무는 퇴계 이황이 철학을 낳을 수 있도록 도와준 스승이다.

글. 강판권(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일러스트. 정윤미



벗이 되어 준 매화

이황은 경상도 예안현 온계리(지금의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온혜리)에서 이식(李埴)의 7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12살이 되던 해 숙부 이우(李堣, 1469~1517년)에게 〈논어〉를 배우면서 학문 세계에 입문한다. 이후 '주역'에 몰두하기도 했고, 진사시에 합격한 뒤에는 성균관에 들어가 〈심경부주(心經附註)〉에 심취했다. 이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한 성리학자의 필독서였다.

이황은 70번이나 관직을 받았으나, 이를 사양했다. 늘 학문에만 몰두했다. 또한, 그는 '청백리(淸白吏)'로 꼽힐 정도로 청렴한 관리였다. 그의 제자가 기록한 〈언행록〉에는 '50세가 되도록 이황은 집이 없었다'고 전한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학문에 정진하며, '착한 사람이 많이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제자를 가르칠 수 있는 단칸방만 있다면, 더는 바라지 않았다. 오십이 되어서는 어지러운 정계를

피하고자 그의 고향에 계상서당(溪上書堂), 도산서당(陶山書堂)을 세우고, 문인들을 가르치며 성리학 연구와 저술에 몰두했다.
이황은 우리나라 지식인 중 매화와 관련한 시를 가장 많이 남긴 사람이다. 그가 평생 쓴 매화 시는 72제(題) 107수(首). 그는 전체 매화 시 중, 62제 91수를 직접 선정해 『매화시첩』도 만들었다. 이황이 유독 매화 시만 골라 직접 편찬한 것은 매실나무를 지독하게 사랑했다는 증거다. 매실나무를 지독히 사랑했던 이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머물렀던 도산서당 절우사(節友社)를 살펴야 한다.



우선 절우사의 이름을 이해해야 한다. 『퇴계집』「도산잡영기(陶山雜詠記)」에 등장하는 절우사는 '절개를 가진 벗이 사는 공간'라고 적혀 있다. 이황은 매화를 비롯해 대나무 · 소나무 · 국화를 '절개'와 '벗'으로 표현했다. 절우사의 '절'이 매화의 정신을 나타낸다면, '우'는 매화를 의인화했다.
또한, 이황의 매화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와 역사'를 알아야 한다. 이황은 단순히 매화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매화에 담긴 문화와 역사를 계승했다.
중국에서는 육조(오 · 동진 · 송 · 제 · 양 · 진 : 229–589)시대부터 본격적으로 매화에 관심을 가졌다. 매화는 육조시대 전에도 있었지만, 특히 육조시대는 중국사에서 '귀족사회'였다. 매화에 대한 감상과 표현은 귀족의 일상이었다. 이황의 절우사도 독창적인 기획이 아니라, 중국 북송시대 임포(林逋, 967–1028)의 사례를 모방했다. 임포는 절강성 서호(西湖) 고산(孤山)에 매화 밭을 만들어 매화와 함께 평생을 산림처사(山林處士, 속세에서 떠나 산골이나 시골에 파묻혀 지내는 선비)로 살았다. 이황도 임포의 뜻을 계승했다.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덕을 몸소 실천하고자 했다.

주자에게도 영향을 받았다. 성리학자에게 매화는 곧, '공부'의 대상이었다. 공부의 목적은 타고난 착한 본성의 실천이었다. 그리고 결국, 이황은 매화를 통해 자신의 격물(格物)과 치지(致知)를 실천했다.

사랑을 시로 전하네

나는 나무에 미친 사람이다. 나처럼 어떤 것에 빠진 사람을 '벽(癖)'이라 부른다. 일종의 예찬론이며, 무언가에 미친다는 것이다. 이황의 매화 사랑도 일종의 '벽'이다. 그가 남긴 매화 시를 보면 알 수 있다.
『매화시첩』에 처음 등장하는 작품은 이황 42세 때의 작품 「옥당의 매화를 추억하다[玉堂懷梅]」이다. 그의 매화 시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분매(盆梅), 즉 '화분의 매화' 관련 작품이다. 왜냐하면 "분매에 물을 주라"는 그의 유언 때문이다. 임종이 인간이 평생 품는 깊은 마음의 표현이라면, "화분의 매화에 물을 주라"는 이황의 유언(遺言)은, 그가 매화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금언(金言)이다. 분매 시 중 두 편을 살펴보자.

「서울 우사에서 분매와 주고받다」
매화 신선이 나의 쓸쓸함을 함께 해주는 은혜를 입어
객창은 소쇄하고 몽혼이 향기롭네
동으로 돌아갈 때 그대와 함께 가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운데
서울의 먼지 속에 고움을 간직해다오



분매는 서울에서 홀로 생활하는 이황의 외로움을 달래준 신선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그는 고향에 내려오면서 분매를 가져 갈 수 없었다. 분매도 이황의 안타까운 마음을 알았는지 그에게 시로 마음을 전했다.

「분매가 답하다」
듣자니 도선과 우리 무리가 쓸쓸하다니
공이 돌아오길 기다려 천향을 피우리라
바라건대 공이 상대하며 생각하는 곳에
옥설의 청진함을 함께 잘 간직하시오

이황이 분매를 잊지 못하는 마음, 이황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분매의 마음은, 분명 깊은 사랑이다. 그래서 서로 신선이라 부르며 아끼는 모습이 무척 아름답다. 이황이 매화와 대화하는 시는 분매 외에도 몇 편이 있다. 다행히도 호사가 김이정(金而精은 이안도(李安道, 1541–1584)를 통해 이황에게 분매를 보냈다. 이황은 손자가 가져온 분매와 극적으로 만난 기분을 다음과 같이 읊었다.

붉은 먼지 일만 겁을 온전히 벗어나
속세 밖으로 쫓아와서 여윈 노인과 벗하네
일 좋아하는 그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았다면
어찌 해마다 빙설의 얼굴을 볼 수 있겠는가?

과연 사랑인가

이황의 매화 시 91수를 분석하면, 그가 장소와 시간 그리고 인물에 따라 매화를 즐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는 달빛 아래서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서도 매화를 사랑했다. 이처럼 이황은 사랑하는 벗과 매화 시를 나누면서 일생을 보냈다.
나는 이황의 「매화를 꺾어 책상에 꽂아 두다(折梅插置案上)」라는 시를 읽으면서 사랑을 생각했다. 매화를 꺾어 책상에 꽂아 두는 일이 과연 사랑일까. 꺾인 매화는 이황에게 어떤 시를 보낼까. 이황이 꺾어 '장식한 창[玉窓]'에 둔 매화 꽃받침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이황은 매화 향기를 맡으면서 먼 곳에 있는 친구를 생각했다. 그러나 매화 향기는 점점 시들어 갔다. 이황은 시들어 가는 매화 향기를 안타까워했다. 장미과의 매화는 꽃잎도 다섯 장, 꽃받침도 다섯 장이다. 이황은 붉은 색을 띤 다섯 장의 꽃받침이 바람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가지를 꺾었다. 가지를 꺾어 집에 가져온 매화가 어찌 오래 동안 향기를 피울 수 있을까. 이황의 눈에는 꺾인 매화에 맺힌 눈물이 보이지 않았나 보다.

Special

梅實

문화

2월 화투에는

동네마다 다른 새가 앉아있다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이는 날이면, 어른들은 줄곧 바닥에 이불을 깔고 화투를 치기 시작했다. 어깨 넘어 '쓰리고, 피박, 광박'을 외치는 화투판을 바라보다 보면,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며 건네받은 돈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제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어른들이 손에 쥔 화투의 의미는 도저히 알 길이 없었다. 저 그림이 이 그림 같고, 이 그림은 또 저 그림 같다. 화투에 그려진 식물과 나무는, 문화와 풍습을 반영한 하나의 상징 기호다.



명절에 빠질 수 없는 오락

명절 오락으로 화투는 단연 최고다. 가족들이 삼삼오오 모여 '판'을 벌리는 모습은 아마도 모두에게 익숙한 광경일 것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의 약 70%가 화투를 즐긴다고 하니, 대단한 국민 놀이가 아닐 수 없다. '고스톱, 도리짓고땡, 섯다'. 짝을 맞추고 점수를 매기는 게 가장 중요하니, 화투에 담긴 의미는 아마도 뒷전일 것이다. 하지만, 이 상징 기호가 내포하는 의미를 알고 난 후 화투를 친다면, 재미는 배가 될 것이다.

화투의 기원은 19세기 말로 거슬러 오른다. 화투는 원래 포르투갈 상인들이 즐기던 '카르타'라는 카드 놀이었다. 개화기 일본으로 유입되면서 '하나후다'로 변형됐다는 게 정설. 그 후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오가는 뱃사람들에게서 한국으로 유입돼, '화투'가 됐다. 그 전까지 조선에서는 숫자가 적힌 패를 뽑고 우열을 가리는 '수투'가 유행했으나, 일본 화투가 들어오면서 사라졌다. 무미건조한 숫자 게임보다, 화려한 꽃 그림을 맞추는 게임이 더 재미가 있었나 보다.

일명 '꽃들의 싸움'이라 불리는 화투에는, 8월을 제외하고 다양한 꽃과 새가 그려져 있다. 월(月)별로 각각 4매씩 총 48장이다. 새가 나오는 달은 1월 두루미(학), 2월 꾀꼬리 · 동박새 · 까치, 4월 비둘기, 8월 기러기, 11월 봉황 · 닭, 12월은 제비다. 1월은 소나무, 2월은 매화, 3월은 벚나무, 4월은 흑싸리, 5월은 난초 · 창포다. 6월은 모란, 7월 홍싸리, 8월 공산, 9월 국화, 10월 단풍나무, 11월 오동나무, 12월은 버드나무다. 숨어있는 짝을 찾아 '짝짝' 때리는 소리는 꽤나 유쾌하다 못해 통쾌하다.

지역마다 매화의 매조가 다른 이유

2월 화투패의 매화 가지에는 '매조(梅鳥)'가 앉아있다. 그런데 앉아 있는 새가 동네마다 다르게 그려져 있단다. 휘파람새, 까치, 동박새, 꾀꼬리…, 새의 종류가 왜이리 많은 걸까?

까치는 새해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새다. 매화는 봄에 제일 먼저 꽃을 피워 봄소식을 전하는 꽃이다. 그러니 까치와 매화의 조화는 봄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셈이다.

동박새는 추운 겨울, 동백나무의 꽃가루받이를 대신한다. 동박새는 매화에도 찾아간다. 화투패 말고도 동양화를 잘 살펴보면, 매화와 동박새가 같이 그려져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매화 가지에 앉아 있는 새는 동박새가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 있다.

꾀꼬리를 매조라고 보는 이도 많다. 하지만, 꾀꼬리는 꽤 틀린 생각이다. 여름 철새인 꾀꼬리를 2월에 볼 수 있다는 건, 자연을 거스르는 일이니까.

놀이에도 문화와 풍습이 담겨 있다니, 어쩐지 화투의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진다. 시원하게 화투 패를 짝 맞추고 거두어들인 후, 점수를 매기다 보면 그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인간이 아닌, 미물들이라는 것을.





Special

梅實

인포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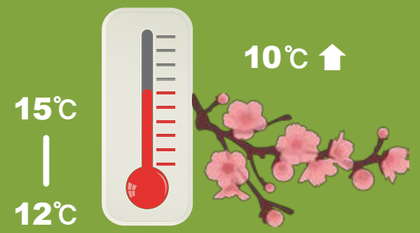
변화무쌍

매실나무

매화, 한 번 알아볼까?

따뜻한 날씨가 좋아요

연평균기온이 12–15℃
개화기간 중 기온이 10℃ 이상인 지역



매화나무야 살구나무야?

꽃이 피었을 때 꽃받침과 꽃잎을 자세히 살펴보자.
꽃받침과 꽃잎이 떨어져 뒤로 젖혀 있는 것이 살구나무다.



우리나라 대표 매화나무 4대장!

❶ 제484호 오죽헌의 율곡매(栗谷梅)

오죽헌이 들어설 때 같이 심어졌다. 신사임당과 율곡이 직접 가꾸었다 하여 율곡매라 부른다.

❷ 제485호 화엄사 들매(野梅)

사람, 동물이 매실을 먹고 난 후 버린 씨앗이 싹 터 나무가 자랐다고 추정된다.

❸ 제486호 백양사 고불매(古佛梅)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을 기르자'는 뜻으로, 고불총림을 결성하면서 고불매라는 이름이 붙었다.

❹ 제488호 선암사 선암매(仙巖梅)

선암사 원통전 담장 뒤에서 자라는 토종 매실나무다.



3월이 되면 잎이 나기 전 꽃을 먼저 피운다.
꽃이 만개하는 때가 되면 매화나무로 유명한 동네는 상춘객들로 붐빈다.
6월이 되면 푸르고 동그란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다.
탐스러운 열매를 수확하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 된다.
장아찌, 매실주, 매실진액까지.
다양한 식품으로 완성된다.
아름다움에서 실용으로 변화무쌍한 매실나무를 들여다 보자.

매실, 한 번 알아볼까?

part 1. 수확 시기에 따라 청매와 황매



• **청매**
음력 5월에
풋매실로 수확

• **황매**
음력 6월에
완숙하여 수확



• **청매로는 매실청**
단단해서 청이 좋다

• **황매로는 술**
잘 익어 향이 좋고
말랑한 황매는 술 담그기에 제격



• **장아찌**
청매 – 아삭한 식감을 살려서 먹고 싶다면
황매 – 부드럽고 쫄깃함을 즐기고 싶다면

part 2. 매실 vs 살구

구분	매실	살구
잔털	미세한 잔털이 고르게 나 있다	잔털이 없고 매끈
맛	익으면 익을수록 신맛이 강하다	익으면 달다
발림	과육과 씨가 밀착되어 발라내기 어렵다	씨와 과육이 쉽게 떼어진다
꼭지	꼭지가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	꼭지가 깨끗하게 분리

part 3. 실한 매실 찾기

• 껍질이 깨끗하고 흠집이 없는 것
• 색이 선명한 것
• 살이 통통하고 단단한 것



도심 속 오아시스

미국 보스턴 공원

미국 매사추세츠 주 보스턴 중심부에 위치한다. 1837년 미국 최초 식물원으로 조성되었으며, 그 전에는 쓰레기 매립지였다고 한다. 공원 내에는 조지 워싱턴 동상을 비롯해 다양한 동상이 있어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공원 내 작은 호수에는 백조들이 여유롭게 수영을 한다. 봄이 오면 그러하듯, 싱그러운 식물과 아름다운 꽃들이 생기를 더해 도심 속 지친 일상을 위로한다.



도시인을 위한

베란다 가드닝 안내서

베란다 가드닝

도심 속에서 매일같이 자연을 갈망한다면, 자연 일부분을 그대로 우리 집 베란다로 옮겨 보자.
겨우내 칙칙했던 실내 분위기는 환하게 바뀌고, 움츠렸던 몸과 마음은 자연스레 평온해진다.
사실 이보다 더 좋은 점은 화단, 옥상, 정원에서 기르는 일보다 수월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뙤약볕이나 찬바람을 견뎌야 하는 수고로움이 없다.

스타일링, 라비앙플레르

이것만은 꼭 확인해 주세요

Chapter ❶ 우리 집 베란다 방향은?

베란다 '방향'은 햇빛이 비치는 양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 당연한 사실이지만, 식물에는 광합성을 위해 충분한 햇빛이 필요하다. 자, 나침반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베란다 방향을 확인해 보자!

- 동향 : 동이 트면서부터 식물이 햇빛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베란다에는 오전 중에만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식물이 웃자랄 수 있다.
- 남향 :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온다. 식물 키우기 가장 좋은 방향이다.
- 남동향 : 오전부터 오후 1시 전후로 햇빛이 들어온다. 남향보다 일조량은 적으나, 역시 식물에게 좋은 방향이다.
- 남서향 : 12시 전후부터 해가 질 때까지 들어온다. 봄과 가을 오후에는 좋으나, 겨울 오전에는 다소 춥다.
- 서향 : 오후 2~3시 이후에 햇빛이 든다. 관엽식물에게는 좋으나, 화초에는 맞지 않다.

Chapter ❷ 베란다 온도 확인했나요?

식물은 저마다 자신이 살 수 있는 온도 범위가 있다. 그 범위를 너무 많이 벗어나면 식물은 살아가기 힘들다. 따라서 베란다 온도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한여름 베란다 온도가 40℃까지 훌쩍 오르는 일이 많은데, 이 경우 식물이 몸살을 앓다 죽을 수 있다.

Chapter ❸ 통풍, 정말 중요해요

통풍이 잘돼야 식물도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 과습을 막을 수 있고 병충해도 예방한다. 창문 가장 가까이에 있으니 큰 걱정은 없다. 다만, 문을 열어둘 수 없는 장마철과 겨울철에는 특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장마철 높은 습도는 식물 곰팡이의 원인이다. 따라서 선풍기를 틀어 인위적으로 통풍을 시킨다. 겨울철 한낮에는 1~2시간 정도 창문을 활짝 열어 통풍한다.



어떤 식물이 좋을까요?

1. 애니시다 : 베란다 정원을 대표하는 봄꽃이다. 꽃이 피는 시기, 겉흙이 마르기 직전에 주는 것이 좋다. 꽃망울이 마르지 않고 예쁘게 핀다. 겉흙이 마른 후에 주면 꽃망울이 마를 수 있으니 주의하자. 만약 물 때를 놓쳐 꽃망울이 말랐을 경우 꽃대를 잘라준다. 새순이 올라오면서 새로 꽃대를 단다.

2. 칼란디바 퀀로즈 : 밝은 빛을 좋아하는 식물 중 하나다. 햇빛이 다소 약할 수 있는 봄과 가을에는 직사광에서 관리하는 게 좋다. 한여름은 반그늘에 관리한다. 시든 꽃은 다른 꽃들을 위해 줄기를 바짝 잘라 정리한다. 기간을 정해 주기보다, 화분 전체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준다. 화분 밑으로 물이 빠져나올 때까지 흠뻑 준다.

3. 캄파눌라 : 꽃이 피는 시기에는 볕이 잘 드는 곳에 두는 게 좋다. 흙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꽃이 지면 빠르게 가지치기를 해준다. 꽃을 한 번 더 피우기 때문에 수개월 간 꽃을 즐길 수 있다. 여름에는 서늘한 곳이 좋고 겨울에는 베란다에서도 겨울을 날 수 있다.

4. 라넌큘러스 : 다년생 알뿌리 식물이다. 원산지는 유럽 남동부로 습한 곳에서 자라지만, 화분으로 키울 때 과습에 주의한다. 뿌리가 녹을 수 있다. 겉흙이 마를 즈음 물을 듬뿍 준다. 꽃에 물이 자주 닿으면 화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꽃이 물에 닿지 않도록 준다.

5. 다알리아 : 국화과의 구근초화 식물이다. 절화(꽃꽂이, 꽃다발 등에 이용하는 꽃)로도 매우 인기가 좋다. 화분에 키울 경우 햇빛이 가장 잘 들고 빛이 밝은 곳이 좋다. 한여름에는 직사광선을 피하는 게 좋지만, 봄과 가을에는 햇빛을 충분하게 받는 게 좋다. 구근식물이라 특히 과습에 주의한다. 화분 겉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물을 준다. 꽃과 잎에 물이 닿지 않도록 흙에만 주는 게 좋다.



Gardening

화분 분갈이



1.

너무 큰 화분보다 한 사이즈 정도 큰 화분으로 준비해주세요. 식물 뿌리에 묻어있는 흙이 젖어 있을 때보다, 거의 말라갈 때쯤 해주는 게 좋습니다. 화분의 물구멍을 배수망으로 막아준 후, 굵은 마사토를 깔아 배수층을 만들어 줍니다.



2.

그 위에 상토, 가는 마사토, 펄라이트를 적당히 섞어 넣어줍니다. 그 후 식물을 심습니다. 식물 뿌리에 묻은 흙은 되도록 털지 말고 그대로 옮겨주세요.



3.

물을 줄 때 흘러넘치거나 흙이 패는 것을 막기 위해 이끼와 화산석으로 덮어줍니다.
분갈이 직후 물을 흠뻑 주세요. 화분은 그늘에 일주일 정도 두어 적응 기간을 가지세요. 그 다음부터는 물을 화분 밑으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주세요. 분갈이 몸살을 예방합니다.



틴케이스 분갈이



1.

틴케이스 안쪽 면을 투명한 비닐로 덮어줍니다.



2.

바닥에 배수성이 좋은 굵은 마사토를 5분의 1 높이까지 편편하게 깔아줍니다.



3.

흙은 상토에 가는 마사토를 적당히 섞어 배수가 잘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포트에서 꺼낸 식물은 흙을 되도록 털지 말고 그대로 옮겨주세요.(컨테이너에 담아 키울 때는 깊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화분 깊이가 10cm 정도라면, 컨테이너 깊이는 두 배 정도가 되는 것을 선택해 주세요. 그래야 뿌리를 잘 내린답니다.)



4.

꽃이 서로의 모습을 가리지 않도록 높이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 상식적으로 키가 작은 식물은 앞에, 큰 것은 그 뒤에 심는 게 좋아요.



5.

물을 줄 때 흘러넘치거나, 흙이 패는 것을 막기 위해 이끼와 마사토를 덮어줍니다.(물은 식물의 뿌리를 적실만큼만 주는 것이 포인트! 물구멍이 없기 때문에 뿌리가 썩을 수 있어요.)



6.

피규어, 자갈 등 화분과 어울리는 소품을 활용해 나만의 미니 정원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인생

시에 짊어지으리다

시인 김용택

그의 시를 읽는 일은 우주를 여행하는 것처럼 황홀하고
사랑에 빠진 것처럼 아득하다.
쉽게 읽히지만, 여운만큼은 깊은 그의 시.
그의 시는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통과했다.
섬진강을 만났고, 사랑을 통해 위대해 졌다.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시인은 고향인 임실 진메마을에서 근 한 달간 고된 노동을 했다고 했다. 돌멩이를 하나하나 쌓아 돌담을 만들었고, 집 주변으로 나무를 심었다. 시 쓰는 일만큼 재미있단다. 덕분에 얼굴이 조금 그을린 듯했지만, 미소에는 행복이 묻어나 있었다.

"고향에 집을 짓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 작업 중이에요. 직접 집을 짓는 건 아니지만, 소소하게 일을 돕고 있어요. 처음엔 힘들더니 몇 번 하다 보니까 일이 손에 잡히더라고요. 돌담이 완성되는 게 눈에 보여 재미있어요."

그는 시인이다. 38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도 가르쳤다. 지금은 교단에서 내려온 지 언 8년. 학교 밖을 나와 아쉽지 않냐 물으니, '자유'로워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단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 허전하기도 했다. 길을 걷다 보면 어른보다 아이가 눈에 더 띄었다. 그렇다고 다시 교단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단다.

"교사라는 틀에 머물러 있었으니 아무래도 답답했죠. 그래서 지금은 무척 자유로워요. 친구들은 퇴직하고 나서 할 일이 없다고들 하는데, 저는 무척 바빠졌어요. 시도 쓰고, 강연에 나가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야말로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된 거죠.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인생이 참 다채로워요."

교단에 있을 때 그는 아이들에게 철학이니, 삶의 가치니 이런 것들을 심어주기 보다 그저 함께 노는 것을 즐겼다. 아이들이 놀면서 스스로 배움을 터득하게 했다. '자연'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었다. 그래서 비와 눈이 오면 그림을 그리게 하거나, 시를 쓰게 했다. 섭리가 바로 자연에 있기 때문이다.

"자연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자연은 배운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보고 듣고 느껴야 하죠. 인간의 모든 삶의 양식과 형식이 자연에서 비롯되었어요. 자연에서 철학, 예술, 과학이 탄생했죠. 그렇기에 자연이 파괴되면 동시에 인간의 삶도 사라지죠. 그래서 자연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흘러흘러 내 마음으로 들어왔다네

진메마을은 아무것도 없는 동네였다. 오로지 산과 들 물이 전부였다.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책을 읽어 본 경험이 없었다. 그렇게 선생이 되었다. 아마 그 무렵이었을 것이다. 그가 처음으로 책을 접하게 된 게. 책장수가 마을에 찾아와 책을 팔던 시절이었다. 그는 '도스토옙스키 전집'을 샀다. 읽다 보니 그렇게 재미가 있었단다. 읽어 치우는 책이 많아질수록 시인의 생각도 많아졌다. 떠오르는 생각을 주체할 수 없어, 시인은 기록하기 시작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글을 썼다. 그저 읽은 후 떠오르는 생각을 1년 2년 그리고 8년 동안, 물 흐르듯 써내려갔다. 그렇게 쓰다 보니 완성된 건 '시'였다.

시인의 뿌리는 섬진강에 있다. 산 사이 작은 들과 작은 강이 있었다. 올망졸망 모인 그 동네에 그만그만하게 생긴 집들이 있는 그곳에서, 시인은 나고 자랐다. 집 문을 나서면 강이 흐르고 있었다. 하루에도 시인은 강을 몇 번이고 건넜다. 햇빛에 잔물결이 그대로 반짝이는 섬진강은 자연스레 소년이었던 그에게, 어른이 된 그에게 스며들었다. 그건 일종의 자연스러운 끌림이었다. 눈을 떠도 섬진강은 흐르고 있었고, 눈을 감아도 섬진강은 마음속에서 흘렀다. 그렇게 시인은 섬진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비단 섬진강만을 이야기한 건 아니다. 섬진강이 흐르는 그곳에는 민초(民草)들의 삶이 있었다. 시인은 시로써 그들을 그려냈다. 그들의 기쁨과 노여움을 슬픔과 즐거움을, 그들의 아름다움을.

"진메마을은 무척 예쁜 동네예요.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죠. 문을 열면 강이 보이는 동네, 길을 나서도 강이 따라오는 동네. 온종일 강과 뗄 수 없는 삶을 살았으니, 친해질 수밖에 없었죠. 자연스럽게 섬진강을 시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았죠."

그의 시는 담백하다. 쉽게 읽을 수 있어 편안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구절 되지 않는 시를 읽고 나면 마음이 아릿아릿 저려온다. 감동이다. 쉽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시를 쓰기 위해 시인은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통과했다. 쉽게 읽히는 글을 쓸 수 있다는 건, 그가 수많은 절망과 고통을 경험했다는 증거다. 절망과 고통을 이긴 시인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헤엄치는 민초들을 위로한다.

"감동이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죠. 자신만의 세계가 확립되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죠.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하고, 그 과정에서 고통 좌절 절망을 경험합니다. 그 시기를 지나면 나만의 세계를 확립할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만드는 거죠."

인생도 예술과 다르지 않다. 어둠을 통과해야 밝은 빛을 만날 수 있고, 그때 나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어둠을 통과했는가. 절망과 고통을 경험했고 좌절에 쓰러졌는가. 우리는 그 절망과 고통을 견뎌 내야 한다.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그의 시상에는 '사랑'이 많이 등장한다. 그래서인지 간질간질하면서도 달콤한 사랑 시가 많다. 연애도 많이 해 보았단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 경험하게 되는 감정, 사랑. 시인은 사랑하는 감정이 한 사람을 위대하고 성숙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사랑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가장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무한히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 외에도 많이 등장하는 시상이 있다. '어머니'다. 왜인지 시인의 어머니는 특별할 것만 같았다. 우매한 생각이었다. 시인의 말 한마디에 머리가 멍해져 왔다.

"어머니는 모두가 위대한 존재예요. 제 어머니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다 똑같죠. 질투하고 다투고 사랑하죠. 다만, 자식이 어머니를 이야기할 때 어머니는 특별해져요.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라면, 나는 어머니가 농사짓고 콩을 베었던 모습을 글로 기록한 거죠."

그는 부지런한 시인이다. 한 번 시상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끝을 본다고 했다. 덕분에 곧 동시집과 시집이 출간될 예정이다. 아니다. 그는 부지런한 사람이기보다,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남들도 좋아하는 일을 찾아 했으면 좋겠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저절로 잘하게 되고, 또 좋아하는 일을 평생토록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행복한 일이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해요. 우리 인생은 길어요. 평생 하기 싫은 일은 일만 하며 살 순 없잖아요. 저는 시 쓰는 일을 가장 좋아하고, 그래서 좋아하는 시를 쓰며 살고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좋아하는 일을 찾으세요. 그리고 갈고 닦으세요."

시를 쓰고 있는 한 그는, 본능이 충분히 만족하는 삶을 살 것이다.



profile

시인 김용택

담백한 언어로 아름다운 세계를 이야기하는 시인이다. 전북 임실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38년간 근무했으며, 지금은 온전한 시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2.

1.



1. 그의 언어는 담백하다. 쉽게 읽히지만, 울림은 그리 가볍지 않다. 그는 말한다. 쉬운 글을 쓰기 위해 어두운 터널을 무한히도 통과했노라고.

2. 시인은 고향 임실 진메마을에서 고된 노동을 했다고 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힘들기도 했지만, 일을 하는만큼 결과가 눈에 보여 재미있다고 했다.

봄 기운이

쑤욱쑤욱

쑥

쑥은 이 봄날에 가장 익숙한 산약초이다.
예부터 뛰어난 약효를 인정받아 약재로 사용해왔다. 오죽했으면 별명도 "의초(醫草)'다.
맹자는 "7년 묵은 지병에 3년 묵은 쑥을 구하라"는 말을 남겼고,
중국 고의서 〈명의별록〉에는 "쑥은 100가지 병을 구한다"고 적혀있단다. 진시황이 찾던 불로초가 '쑥'이었다는
설이 있을 만큼, 쑥은 우리 몸에 좋은 산약초다.

검수. 전권석 박사(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오랫동안 사랑 받아온 쑥



〈단군신화〉를 들여다보자. 사람이 되고 싶었던 곰과 호랑이에게 환웅은 쑥과 마늘을 주고 100일 동안 동굴에서 빛을 보지 않고 생활하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호랑이는 100일을 참지 못하고 동굴을 뛰쳐나갔다. 곰은 100일을 참아냈고, 드디어 인간이 되었다. 곰이 쑥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어쩌면 쑥이 사람에게 약효가 뛰어나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었을까. 비단 곰과 호랑이의 이야기에서뿐만 아니다. 예부터 지금까지 쑥은 변함없이 사랑받아온 산약초이다. 우리의 풍습에서 오래도록 자리해 왔다. 이사 가기 전, 짐을 들여놓기 전에 집 귀퉁이에 말린 쑥을 놓고 태웠다. 쑥 향이 잡귀를 물리친다고 믿었단다. 또 액을 막고 수명을 연장해준다고 하여 삼짇날(음력 3월 3일) 쑥떡을 해 먹기도 했다. 여름밤에는 쑥으로 연기를 피워 모기와 해충을 쫓았다. 쑥은 생명력도 강하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을 때 쑥은 제일 먼저 생명을 틔었다. 쑥의 약효는 바로 이 강인한 생명력에서 오는 것은 아닐까.

어떻게 활용할까

쑥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 항암 작용을 하는 '엽록소'가 많아 꾸준히 섭취한다면 암 예방에도 좋다. 피부 건조,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증상을 예방하는 데도 최고다. 쑥은 성질이 따뜻해 부인과 질환에 많이 사용한다. 손발이나 아랫배가 찬 경우, 생리통, 생리불순에 좋다. 예부터 냉대하증이 있을 때 요강에 쑥을 넣어 태운 후 그 위에 앉아 훈기를 쐬면 사흘 만에 낫는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 요법은 한의사들이 부인병을 치료할 때 여전히 권하는 방법이라 한다. 효능만큼이나 이용 방법도 다양하다. 먹는 것 말고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바로 '쑥뜸'이다. 뜸은 뜸불의 열을 경혈에 보내어 기와 혈을 통하게 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한방 치료법이다. 쑥뜸은 세포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면역 능력을 강화한다. 그렇다면 쑥을 언제 채취하는 게 좋을까? 풍습에는 단오(음력 5월 5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뜯는 쑥이 약 효과가 가장 좋다고 전해진다. 단오 이전에 채취하면 약효가 부족하고, 단오를 넘으면 독성이 있으므로 단오쯤 채취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한다. 채취한 쑥은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비와 이슬을 피해 그늘에 말린다.

쑥, 다 같은 쑥이 아니다

쑥이라고 해서 다 같은 쑥이 아니다. 쑥의 종류는 250가지가 넘을 정도로 많다. 우리나라에는 참쑥, 쑥부쟁이, 인진쑥, 개사철쑥, 사철쑥, 사자발쑥, 개똥쑥, 구름떡쑥, 구와쑥, 그늘쑥, 가는잎쑥, 비쑥 등 30여 종이 자생한다. 흔히 우리가 먹는 쑥은 '애쑥' 또는 '참쑥'이라고 하고, 쑥뜸에 사용하는 것은 보통 '약쑥'이라고 한다. 그중에서도 약으로 쓰는 인진쑥과 개똥쑥에 대해 알아보자.

❶ 인진쑥
일반 쑥과 상당히 다르다. 일반적으로 먹는 쑥은 1년생 풀이고, 인진쑥은 사철쑥이라 부른다. 인진쑥은 우리 몸에 좋은 효능을 두루 갖추고 있다. 주요 효능으로는 담즙 분비 촉진작용, 니뇨작용, 해열작용 등이 있다. 간염, 간경변증 같은 간질환에도 좋다. 한 번 먹을 때 4~9g 정도를 달여먹는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거나 체질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간에 부담될 수 있다.

❷ 개똥쑥
다른 쑥과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다. 8월에서 9월 사이, 개똥처럼 노란 꽃이 피어 개똥쑥이라 부른다. 황화호(黃化蒿)로 부르기도 한다. 풀 전체에 털이 없고 독특한 향이 난다. 발열 감기, 소아 열성경련, 소화불량, 이질에 좋다. 피부염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 다만 성질이 차가워 소화력이 약한 사람,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잘 마른 잎으로 차를 달여 마시거나, 가루를 내 먹으면 된다. 차로 마실 때 마른 잎은 12g 이하를 사용한다. 물 600g에 쑥 5~8g을 넣고 달여 하루 2~3잔 마신다.



쑥의 효능

1.
헝겊주머니에 말린 쑥 잎 20~30g을 넣어 욕조에 띄어 목욕하면 요통을 다스린다.

2.
말린 쑥을 차로 달여 마시면 신경통에 좋다.

3.
벌레 물린 데, 베인 상처에 즙을내어 바르면 효과가 좋다.

어떤 날 숲

운명처럼

널 사랑해

천리포수목원

영화와 드라마는 언제나 '해피엔딩'이 보장된다. 그와 다른 게 현실이다.
현실은 여러 고비와 어려움을 곱절은 씹어 보아야 한다.
그 고비 속에서 맞잡은 손을 '꽉' 부여잡고 있어야만 해피엔딩이 된다.
운명이란 달고 쓴 맛을 함께 경험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거니까.

선의의 거짓말이 운명이 되기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솔직함이다. 하지만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이 필요할 때가 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거짓말 한마디, 연인의 관계를 잇기 위한 거짓말 한마디, 상대방의 기분을 고려한 선의의 거짓말이 때로는 '약'되는 셈이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운명'을 부추기기도 한다.
"근무 중에 만난 고객이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 한 번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아는 동네 총각'이래요. 한 번 만나 보았죠.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 어느 순간 '식장'에 들어서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고객은 제 시어머니가 되었고요."
만날 운명은 결국 어떻게 어디서든 만나게 되는 걸까. 그렇게 고객과 직원과의 사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라는 가족이 되었고, 그때 만난 운명 같은 남자는 남편이 되었다. 정반대의 성격은 싸움을 부추기기도 했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성격이 서로를 더욱 끌어당겼다.

결혼 5년 차 민지희 씨와 이종근 씨에게 1년 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운명이 한 명 더 생겨났다. 딸 이제후 양이다. 결혼 3년 만에 찾아온 소중한 딸은, 상위 3%에 속할 만큼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다. 무슨 운명 같은 장난 이길래, 딸 제후가 태어난 날이 어버이날이란다. 그러하니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라는 뜻깊은 날이기도 하지만, 딸 제후가 찾아온 날이기도 하기에 부부에게는 더욱 특별한 날이 아닐 수 없다.

"5월 8일은 제후가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일 년이 되는 날이에요. 예쁜 한복을 차려입고 기념사진도 찍었죠. 하지만 우리 제후에게 더욱 의미 있을 만한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평소에도 여행을 많이 다니지만, 자연을 더욱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 주고 싶었어요."

목련의 진가를 목격하다

바람도 따스하게 불어오는 봄날이다. 민지희 씨 가족에게는 딸 제후의 생일이 있는 계절이기도 하다. 딸 제후와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가족은 설렘과 기대감 가득 안고 천리포수목원을 찾았다.







1.
바람도 따스하게 불어오는 봄날, 민지희 씨 가족은 천리포수목원을 찾았다. 천리포수목원의 모혜란 선생님이 부부를 위해 숲 해설에 나섰다.

2.
천리포수목원에는 600여 종의 목련이 있다. 독특한 꽃 모양과 예쁜 색이 특징인 '얼리버드'는 천리포수목원의 자랑.

3.
송림길 끝에 다다르면, 수목원의 가장 아름다운 전망이 펼쳐진다.

대전에서 천리포까지, 두 시간이 넘는 거리를 가족은 달려왔다. 오는 내내 제후는 한 번도 울지 않고 조용히 잠을 청하면서 컨디션 조절을 해주었단다. 바닷바람이 춥지도 않고 햇볕은 뜨겁지도 않으니, 한 살 배기 아이와 함께 여행하기 딱 좋은 날이었다. 천리포수목원의 모혜란 선생님이 부부를 위해 숲 해설에 나섰다.

천리포수목원은 해변과 접해 있어 독특한 매력이 있는 곳이다. 미국에서 귀화한 민병갈(Carl Ferris Miller, 1921~2002) 원장이 만둥산이었던 이곳을 1만 6,000여 종의 꽃과 나무를 심어 숲으로 가꿨다. 원래는 비개방 수목원이었는데, 2009년부터 7개 구관 중 민병갈 원장의 이름을 딴 첫 번째 정원 '밀러의 정원(Miller's Garden)'만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시작했다. 울창한 소나무 숲 '송림길'을 시작으로 해, 비밀의 정원이 시작된다.

울울창창한 소나무가 가족을 열렬히 환영한다. 데크로 이어진 이 길은 휠체어와 유모차 모두 이용 가능할 수 있게 조성되어 있다. 송림길 끝에 다다르자, 수목원의 가장 아름다운 전망이 펼쳐진다. 연못과 민병갈 기념원이 한눈에 조망된다.

천리포수목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식물을 품고 있다. 그중 단연 최고는 수많은 종류의 '목련'이다.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특별한 목련을 만날 수 있다. 겨울에도 꽃을 볼 수 있다는 '윈터가든(Winter Garden)'으로 향했다. 생김새도 색도 특이한 큰별목련 '얼리버드'가 윈터가든 중심에서 활짝 피어있다. 마침 목련이 만개한 때여서 이래저래 운이 좋다. 이렇게 운명적인 만남이 이들 부부에게 또 한 번 찾아왔다.

"제후야 이 나무가 목련이래. 참 예쁘지." 제후의 눈망울에도 이 절경이 아로새겨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엄마와 아빠는 제후에게 꽃을 알리기 바쁘다. 아직은 모든 게 입으로 가고 손으로 만지는 일이 전부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하나부터 열 가지 다 알려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는가.



3.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수목원

수목원을 한 바퀴 돌고 나면 방문객들이 마지막으로 들르는 곳이 있다.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이다. 향긋한 꽃향기에 한 번, 알싸한 바다 향기에 한 번 취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다. 수목원 앞으로 펼쳐진 해변은 조수간만의 차로 하루 두 번 물이 빠진다. 물이 빠진 바다는 고요하고, 부부의 마음은 일렁인다.

"수목원에 바다가 있다니, 정말 멋지네요. 이곳에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무척 아름다워요."

경치 앞에 서서 가족은 행복한 앞날을 상상해 본다. 우리 가족의 행복한 미래, 우리 가족이 함께 이룰 목표, 아름다운 풍경에서 가족과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민지희 씨에게 아련하게 다가온다. 씩씩한 엄마이자, 사랑스러운 아내 민지희 씨는 오늘 자신이 느낀 그러한 마음이 남편 이종근 씨에게도, 딸 제후에게도 오롯이 기억되었으면 한다.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좋은 기억을 남길 수 있어 행복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되고, 내가 당신의 남편이 되어 가족이 되는 일. 가족이 되어 내 아이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일. 운명처럼 일어난 일이 겹겹이 쌓여 추억을 만들고, 추억은 방울방울 맺혀 가족의 행복이 된다. 가족의 운명 같은 하루가 또 이렇게 아름답게 완성되었다.

천리포수목원



-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천리포1길 187
- 문의 : 041-672-9982
- 홈페이지 : www.chollipo.org

● 입장시간

구분	기간	개장 시간	입장 마감
동절기	11월~3월	09:00~17:00	16:00
하절기	4월~10월	09:00~18:00	17:00
여름 연장 운영	7월 18일~8월 16일	09:00~20:00	19:00

- 연중 무휴
- 탐방 소요 시간 약 1시간 30분

그린테이블

활력 부르는

봄철 밥상

참나물 · 원추리

나물을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계절은 봄이다.
제철 맞은 나물은 영양분도 많고 맛도 좋아 몸에 활력을 '불끈' 솟아오르게 한다.
봄철, 활력 부르는 나물을 요리해 보자.

요리 & 스타일링. 김보선 어시스트. 박재원





겨자 소스 참나물 돼지 샤브 냉채

재료

참나물 80g, 양파 ⅛개, 대패 삼겹살 80g,
된장 1+½큰술, 다진 마늘 ½큰술
겨자소스 – 식초 3큰술, 간장, 연겨자, 설탕
1+½ 큰술씩, 다진 마늘 1+½작은

만들기

1. 참나물은 깨끗이 씻어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양파는 가늘게 채 썬다.
2. 냄비에 고기가 담기기 충분할 정도의 물을 붓고 된장과 다진 마늘을 넣고 끓인다. 물이 끓으면 대패 삼겹살을 넣고 익혀 건진다.
3. 겨자소스를 만든다. 볼에 분량의 재료들을 넣고 고루 섞은 뒤, 참나물과 양파, 고기를 넣고 가볍게 버무려 접시에 담아낸다.

Tip.

참나물과 독초, 이렇게 구분하세요

시약의 재료였던 '천남성', 독초 '피나물'은 참나물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참나물은 잎이 매우 거칩니다. 이와 달리 천남성은 매끄러워요. 피나물은 꺾었을 때 붉은 진액이 나옵니다.

Tip.

원추리는 금방 익는다. 너무 일찍 넣어 푹 익히기보다, 마지막으로 달걀 푼 것을 넣을 때 같이 얹어 살짝만 익혀내는 것이 좋다.

원추리 닭고기 달걀 덮밥

재료

원추리 30g, 닭다리살 2장, 양파¼개, 달걀 2개,
밥 2+½공기
국물 – 참치액, 간장, 청주 1+½큰술씩, 설탕
1큰술, 물 1컵

만들기

1. 원추리와 닭다리살은 깨끗이 씻어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양파는 굵게 채 썬다.
2. 냄비에 국물 재료와 닭다리살, 양파를 넣고 끓인다. 닭고기가 거의 다 익으면 달걀 푼 것과 원추리를 넣어 마저 익힌다.
3. 그릇에 밥을 담고, **2.**를 얹어 완성한다.





청춘백서

젊음에 고하노라

장성 백련동편백농원

한 때는 도망이라도 가고 싶었다. 벗어나고 싶어 택한 차선은 대학이라도 다른 지역으로 다니는 것.
이제는 그렇지 않다. 지금은 죽을 때까지 머물고 싶은 곳 아니,
자식의 자식까지 대대손손 물려주고 싶은 곳이다.
삼대가 함께 귀농한 후, 그야말로 '고군분투'한지 어느덧 20년.
어엿하게 자란 소년은 가족은 물론 마을 주민과도 상생할 줄 아는 임업인이 되었다.
백련동편백농원 김진환 팀장의 이야기다.

흔한 것이 보물이 된다

20년 전, 삼대가 함께 장성으로 귀농했다. 몸이 편찮으셨던 할머니의 꿈이었다. 처음 시작하는 시골살이가 다 그러하듯, 꽤 녹록지 않았다. 먹고는 살아야 했으니 대추나무와 여러 농작물을 키웠다. 기술을 자문할 곳도 없었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오로지 책만 뚫어지라 쳐다보면서, 글로 기술을 익혔다. 턱도 없는 시도였다. 그러하니 소득은 바닥을 기었고 통장은 마이너스를 찍었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자그마치 7년이었다.
"적금 깨는 건 물론이고 장성에 타고 왔던 차도 전부 팔아야 했어요. 할아버지의 퇴직금도 모두 쏟아 부었죠.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함께 귀농한 터라 포기할 순 없었어요. 7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만 줄곧 하던 터라, 새롭게 시작할 여력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때였죠. 지천에 깔린 편백잎이 눈에 번쩍였어요."

농원이 위치한 자리가 절묘한 '한 수'였다. 농원이 위치한 곳이 바로 축령산 안. 지천으로 널려 있는 게 편백나무였고 바닥에 밟히는 게 편백잎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치이는 곳마다 편백나무가 있으니 그리 자원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 덕분이었다. 그렇게 두 부자(父子)에게 편백나무는 삶이 되고 운명이 되었다.

노력은 좋은 결과를 만든다

지금은 피톤치드를 마시려고 일부러 편백나무 숲을 찾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 마을 주민만 해도 누구도 편백나무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장작으로만 사용하는 정도였다.
"편백나무의 독특한 향을, 그때 알아보았죠. 다양한 산학연의 문을 두드렸어요. 조선대학교, 광주여대, 동신대 등을 계속 오갔죠.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한 결과 편백잎이 항균, 항염에 좋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1. 2.

● 오감체험



1.
향으로 즐기기





2.
색으로 즐기기



3.
두드리고 만지기



4.
숲 소리 듣기

5.
미감 체험하기

그 결과, 편백나무를 이용한 화장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어요. 버려지는 자원을 사용하니 환경문제는 물론 장성군 예산 절감 효과에도 톡톡히 한몫 했죠."

김 팀장의 아버지는 간벌한 나무를 활용해 도마와 같은 가공품을 만든다. 휘어지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나무, 붙어 자라는 나무는 정리해야 다른 나무가 성장할 수 있다. 축령산 규모만 해도 280ha, 장성 지역에 심어진 나무 60%가 편백나무다. 그러하니 간벌목으로 나오는 나무도 편백나무가 가장 많다. 간벌목을 제거한 자리에는 편백나무농원에서 재배한 묘목으로 대체한다.

김 팀장은 아버지가 직접 만든 가공품을 백련동편백농원 판매장에서 판매하고, 찾아오는 고객들에게 편백나무의 효능을 설명해준다. 위치하는 곳이 축령산이다 보니 방문객도 꽤 됐다. 그래서 김 팀장은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하나 더 생각했다. '마을공동체 농특산물판매장'이다.

"장성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와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사실 아무리 좋은 농산물을 재배해도 판로가 없는 게 사실이에요. 저희가 귀농했을 때 겪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방문객들이 늘어나니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장성 농가에서 직접 기른 질 좋은 농산물을 판매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무상으로 이 공간을 장성 농가에 쉐어링(Sharing, 공유) 해야겠다고요."

하지만 2차 상품만으로는 소득에 한계가 있었다. 방문객을 이곳에 머무르게 해야 하고, 기억에 남게 해야 하며, 특별해야 할 것 같았다.

"그래, 6차 산업이다!"

이웃과 상생하라

"6차 산업에 성공한 다른 농가에 선진지 견학도 가 보았죠. 직접 체험해 보니 문제점이 바로 느껴졌어요. 체험은 3~4가지밖에 안 되고,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체험이더군요. 눈높이가 맞지 않았어요.



3.



4.

1.
1차 산업은 묘목을 기르는 일이다.

2.
일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김진환 팀장의 할아버지는 여전히 농원을 관리한다.

3.
백련동편백농원은 나이에 맞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4.
산학연과 협력해 편백잎 화장품도 개발에 성공했다.



쉽다 못해 체험이 채 20분도 되지 않더군요. 농가에 물어봤죠. '오셨던 분들이 다시 찾아오시던가요?' 재방문율이 낮대요. 제 생각은 달랐어요. '한 번 방문했던 사람이 또 다른 체험을 하러 다시 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했죠.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방면의 전문가와 개발했어요."

오감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래서 보유한 체험 프로그램만 해도 40여 가지다. 시원한 편백 향을 맡아보고, 뚝딱뚝딱 두드려 각종 생활용품도 만든다. 쌉싸래한 맛을 느끼기 좋은 요리 체험도 즐길 수 있으며, 산림청과 연계한 편백숲 체험도 있다. 특히 서부지방산림청 숲해설가들의 도움이 컸다. 전문성 있는 숲해설가에게 프로그램을 맡기니, 체험객들의 신뢰도와 만족도 또한 높았다.

"편백잎을 개발할 때부터 산림청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산림청에 의견을 물어봤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라면서 조언을 얻었어요. 덕분에 기반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산업을 확장하면서 김 팀장은 생각했다. '방문객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보여주자' 그래서 다른 농가와 다르게 그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 삼대가 함께 모여 있는 이유가 가장 컸다. 무리수를 두고 사업을 확장하고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고객과의 '신뢰' 때문이다. 그렇기에 김 팀장은 영역을 확장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지원을 받지 않았다. 없으면 없는 대로, 혹여나 필요하다면 형편에 맞게 하나씩 차례차례 늘려나갔다.

성공 요인은 무엇일까?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쥐어짜며 하는 것? 아니면, 잘 모르는 분야에도 이거 조금 저거 조금 발을 담그는 것? 김 팀장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농사, 개발, 유통, 마케팅 다 잘할 필요가 없단다. 홀로 1차 2차 3차를 융·복합하지 말고, 분야마다 잘하는 사람과 상생하란다.

"저는 도시에서 살다 귀농했잖아요. 저희가 농사 지으려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평생 밭을 일군 사람 못 따라가요. 대신 그들보다 우리가 더 잘하는 게 있죠. 제 경우에는 고객님과 만나는 걸 잘하고, 마케팅을 좋아하죠. 제 동생은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니 이곳에서 식당을 운영해요. 귀농하신 분들도 분명 자기가 가장 잘하는 일이 하나 정도 있을 거예요. 전공과 직업이 있을 거예요. 가장 잘하는 것, 하나를 살리세요. 하기 싫을 걸 억지로 한다면 절대로 소득을 높일 수 없을 거예요. 농촌에 달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분들과 상생하세요."

김 팀장에게 도시에 너나할 것 없이 생겨나는 프랜차이즈(franchise)는 매력이 없다. 오히려 오랜 세월 역시와 전통을 이어오는 공간이 좋다. 백련동편백농원도 그렇게 되기를, 김 팀장은 바란다. 김 팀장은 말한다. 농촌은 생각보다 창조적인 공간이라고. 그래서 자신처럼 많은 청년이 농촌으로 유입하면 좋겠다. "친구들 모두 이곳으로 끌고 와야죠" 무엇보다 그의 젊음과 패기는, 지금 그가 가진 가장 큰 자산임은 분명하다.

장성 백련동편백농원



- 위치 :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추암로 555
- 문의 : 061-393-7077
- 홈페이지 : http://www.brdong.com

숲과 친구가

되는 방법

캠핑 놀이

숲이 가까운 캠핑장에 간다면, 고기만 구워먹지 말고 아이와 함께 숲으로 가자.
몇 가지 준비물을 챙기고 놀이 방법만 기억해둔다면, 아이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할 수 있으니.

글. 박근희(조선일보 행복플러스 섹션 기자)



숲을 사랑하게 되는 캠핑 놀이

흔히들 '숲은 최고의 놀이터'라고 말한다. 다수의 캠핑장이 숲과 가까이 있거나 숲 속에 자리 잡고 있어 캠핑을 하면 최고의 놀이터인 숲과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가 많아진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숲에 가면 정작 어떻게 놀아야 할지, 무엇을 하고 놀아야 할지 몰라 난감해한다.
사실 숲에 가서 꼭 무언가를 하며 놀아야하는 것은 아니다. 나무 그늘 밑에 앉아 숲에서 들려오는 풀벌레와 새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것도,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햇빛을 보며 명상에 잠기는 것도 결국 숲 놀이다. 그런데 아이와 함께라면 조금 얘기가 달라진다. 가만히 앉아 명상이나 하기에 아이들의 집중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숲 놀이'다. 숲에서 즐겁게 놀아본 아이들은 굳이 '자연보호'를 강조하지 않아도 숲을 소중히 여긴다. 그곳에 가면 놀이터만큼 즐거운 것이 있고, 그 즐거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 풀 한포기, 꽃 한 송이도 함부로 꺾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 때문이다.









Part 1
챙기면 좋은 준비물

❶ 항상 챙겨다니면 좋은 준비물
'숲 가방'에 넣어 다닌다.
· 관찰용 루페, 목걸이용 돋보기, 배면관찰경과 같은 관찰도구, 들고 다니기 편한 작은 채집통, 날카롭지 않은 가위, 밴드, 상처 치료제 같은 간단한 상비약품, 자외선차단제

❷ 가끔 챙기면 좋은 준비물
숨바꼭질 놀이를 위한 워키토키 같은 무전기, 숲의 하늘을 볼 수 있는 숲 거울, 얇은 손수건 등 놀이 테마에 맞는 준비물을 별도로 챙겨다닌다.

❸ 숲으로 갈 때 옷차림
거추장스럽지 않은 긴 소매의 옷차림. 반팔과 반바지 차림이라면 맨살을 감싸주는 자외선 차단 토시를 한다. 숲으로 들어가기 전 벌레 기피제를 적당히 뿌려주는 게 좋다.

Part 2
간단한 준비물과 자연물을 활용하는 놀이

❶ 나뭇잎 퍼즐 맞추기 놀이
· 준비물 : 가위, 얇은 손수건, 커다란 나뭇잎
커다란 나뭇잎(이왕이면 땅에 떨어져 있는 잎)을 주워 조각낸 후 손수건 위에 올려둔다. 조각난 잎은 다시 원래 모습대로 퍼즐을 맞춘다. 아이가 아직 어리다면 나뭇잎 조각을 큼지막하게 자른다. 초등학생 이상이라면 조각을 좀 더 작게 잘라 복잡한 퍼즐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❷ 솔방울 골인 놀이
· 준비물 : 달걀판, 30cm 정도의 노끈, 펜
솔방울 끄트머리에 노끈을 묶는다. 달걀판 끄트머리에 작은 구멍을 뚫은 후 노끈을 묶고 솔방울과 달걀판을 연결한다. 달걀판에 1~10의 숫자를 써서 점수판을 만든다. 놀이할 때는 달걀판을 위아래로 움직인다. 솔방울을 달걀판 안에 골인시켜 점수를 가장 많이 획득한 사람이 승리.

Part 3
준비물 없이 빈손으로 할 수 있는 놀이

❶ 나만의 장난감 찾아오기
숲에 있는 자연물(주로 땅에 떨어져 있는 것들 위주) 중,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 모양을 닮은 것을 찾아오라고 미션을 주자. 남자아이들은 자동차, 칼, 공룡 모양의 돌멩이나 나뭇가지 등을 주워오고 여자아이들은 보석, 하트 모양의 돌멩이, 나뭇잎 등을 주워온다. 아이가 스스로 상상해 찾아온 자연물 장난감이 비록 아이가 말하는 모양과 비슷하지 않아도 "정말 비슷하다"거나 "아주 재미있는 모양"이라고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❷ 애기똥풀 매니큐어 바르기
노란색 애기똥풀은 봄부터 시작해 초가을까지 산기슭, 길가의 눅눅한 곳에서 자라는 두해살이풀이다. 애기똥풀을 자르면 노란색 즙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마치 갓난아이 똥과 같아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노란색 액체를 손톱에 바르면 마치 형광펜을 바른 듯 손톱이 노랗게 물든다. 노란색 즙은 수성이어서 물에 닿으면 금방 지워진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애기똥풀 즙에 독이 있어 먹으면 안 된다는 것. 대신 벌레에 물렸을 때 애기똥풀을 짓이겨 바르면 꽤 잘 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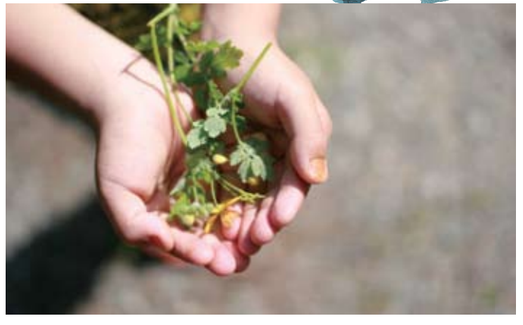
Part 4
숲과 더욱 친해지는 놀이

❶ 나무 맥박 듣기 놀이
· 준비물 : (교구용 또는 보급용)청진기
나무에도 맥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놀이. 나무의 맥박이란, 삼투압 현상에 의해 나는 소리다. 의사 선생님처럼 청진기를 끼고 나무를 진찰할 수 있어, 호기심을 느낀다. 나무의 맥박은 주로 비가 온 뒤 단풍나무, 버드나무와 같은 굵은 나무에서 잘 들린다(실제로 들어보면 '쉭쉭' 소리가 난다).

❷ 숲 속 친구들 밥상 차려주기
어린아이들에게 소꿉놀이만큼 재미있는 놀이도 없다. 숲에 가서 도토리와 같은 열매, 꽃잎 등을 주웠다면, 나뭇잎으로 그릇을, 작은 나뭇가지로 젓가락을 만들어 소꿉놀이를 해본다. 숲 속 요정이나 숲에 사는 다람쥐 등이 와서 먹길 기도하면서 넓적한 바위에 '밥상'을 차려놓는다면 그 어느 때보다 재미있는 한때를 보낼 수 있다. 참고로 도토리는 다람쥐의 먹이다. 가지고 오는 것보다 숲 속에 두고 오길 권한다.









자연이 만드는

삶

<2화> 산촌에서 임업인으로 살아가기

목인동에 살면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유기농으로 키운 고추 농사가 낭패를 본 일, 열심히 자란 소나무가 모조리 죽은 일, 목인동이 농촌교육장으로 선정된 일. 여유롭게 보내려했던 산촌생활이, 꽤 복잡한 일상이 되었네요. 그래도 저는 언제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글. 이용길

산촌일기
귀산한 사람은 무얼 하며 살까요? 두 번째 이야기는 다양한 농산물을 재배하고, 농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용길 씨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전원에 산다는 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2005년 개간한 땅에서, 처음으로 서리태 농사를 짓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이듬해 2006년에는 너른 들판에 고추를 심었어요. 5월 초부터 동생이 불러준 사람들과 함께, 고추 모 만여 포기를 심었습니다. 거름을 듬뿍 주어가며 열심히 길렀죠. 유기농으로 꼭 심어야겠다 마음먹어서, 고생을 좀 했어요. 풀을 뽑고, 순지르기를 하면서 봄을 밭에서만 지냈네요. 봄부터 여름까지, 새벽부터 밤늦도록 고추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했죠. 고추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함도 터득했습니다. 그런 제 노력을 고추가 알아주었는지 싱싱하게 잘 자라주더군요.
정성으로 심은 고추가 붉게 익어 가기 시작하는 7월 말부터, 수확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고추를 많이 심었으니, 수확하는 일도 장난 아니더군요. 농부의 땀과 정성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막상 시장에 내다 팔려고 하니 유기농 고추나, 일반 고추나 가격이 별반 다를 바 없더군요. 그래서 고추 농사는 바로 포기했어요. 시골에서의 노동 가치는 도회지의 그것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면, 시골에서 삶도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개간한 밭을 마냥 놀릴 수만은 없어, 무얼 할까 고민했죠. 심사숙고한 끝에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마을은 전국에서 조경수 재배로 가장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도 절로 조경수 재배에 관심이 갔습니다. 원래 꽃과 나무를 기르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고, 그런 일을 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장 지아노의 소설 〈나무 심는 사람〉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매일 나무를 심었어요. 그때 당시 가장 인기가 좋은 나무는 '소나무'였어요. 소나무를 위주로 심었는데, 아니 마침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고추 농사에 이어 저에게 낙담을 안겨 준 사건이었죠.
또, 첫해에 나무가 고사(枯死)했습니다. 배수를 잘 못해줘서 많이 죽었던 것 같아요. 봄부터 가을까지는 풀과의 기나긴 전쟁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뽑아도 풀은 왜 이리 많이 나는지.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전원에서의 삶은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구나…. 다행히 다음 해에 나무가 씩씩하게 잘 자라 뿌리를 내렸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곳에 뿌리를 내린 것 같아 기쁩니다. 이제는 시골 사람이 다 된 것 같네요.

아이들에게 자연을 알리다

나무를 키우는 일이 쉽진 않더군요. 제 생각으로만 나무를 길렀어요.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평생을 도시에서 살다가 아무런 정보 없이, 남들은 몇 년에 걸쳐 일군 성과를 한 번에 이루려고 하니 그랬던 것 아니겠어요.
안 되겠다 싶어, 세종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야생화반'에 가입했어요. 귀농한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이었죠. 그때 농업 코스를 수료하면서 식물의 이해가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저 나무만 가꾸며 사는 것이 전부였던 제게,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죠.
그런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 계기가 있습니다. 2012년에 목인동이 세종시 '농촌교육장'으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오랫동안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도 하에 교육농장 시설을 정비하고, 지역아카데미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 후 처음으로, 세종시 전동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목인동의 체험 교육을 선보였어요. 교육 과정은 이러해요. '소나무 향기 느끼기, 소나무 향기가 주는 이로움 알아보기, 소나무 숲길을 걸으며

[이용길]

20여 년의 도시 생활을 접고 2004년부터 산촌 생활을 시작했다. '땅을 사랑하고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를 모토로, 진정한 자유와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1.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목인동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2.
아이들의 순수한 상상력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정말 놀라워요.

3.
'자연을 담는 아이들' 프로그램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수련활동진흥원에서 인정 받았어요.

1. 2.







3.





4.
5.

4.
천천히 흐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는 목인동. 제가 생각하는 목인동의 가치입니다.

5.
목인동 앞마당에서 음악회도 열었어요. 단상도 직접 만들고 맛있는 요리도 준비했죠. 또 한 번 음악회를 열고 싶어지네요.

소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 느끼기, 소나무와 주변 소재를 이용해 작품 만들기'. 체험장에 방문한 아이들이 즐거워해서 우리 부부 내외도 덩달아 즐거웠어요. 친구들이 작품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니,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고의 무한함. 고정관념으로 사물을 보는 데 익숙했던 저에게, 교육농장 수업은 참신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우리 내외도 덩달아 배우는 게 많았죠.
2014년 세월호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수련 활동진흥원에서 '나만의 정원 만들기', '자연을 담는 아이들' 등 목인동 체험 프로그램이 인증도 받았어요. 앞으로도 차별화된 교육, 아이들의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심어보려 합니다.

천천히 물 흐르듯 이 땅에 고이는 것

2009년 10월 3일이었을 거예요. 목인동 앞마당에는 구절초가 흐드러지게 피어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목인동에서 그림 전시회와 작은 음악회를 열었어요. 원래는 지인 몇몇만 초대해 조촐하게 '목인동 가을 음악회'를 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일이 꽤 커졌어요. 앞마당에 단상도 직접 만들었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했죠.
어둠이 어스레하게 깔리는 저녁, 음악회가 시작되자 마당은 사람들로 꽤 붐볐어요.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마지막 공연이 끝나니 어둠이 짙게 깔렸습니다. 불을 끄고 손님들에게 촛대를 하나씩 쥐여줬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시를 낭송하다 보니 은총이 별처럼 내리는 듯했어요. 시간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또다시 한 번 더 별이 빛나는 숲 속의 작은 음악회를 개최하고 싶네요.
올해에는 참취, 어수리, 눈개승마, 방풍, 명이나물, 곤드레 등 산야초를 많이 증식하려고 합니다. 때마침, 세종시에 많은 도시민이 이주해 와서 로컬푸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촌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을 생각해 봅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고, 산야초를 비롯해 싱싱한 먹거리를 제공해주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목표 하나를 더 세웠어요. '슬로우 레지던스 (slow residence)'란 신조어를 만들 거예요. 목인동이 그런 공간이죠. '모든 것이 느리게 흘러가는 공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 느리게 살아가는 즐거움을 바로 목인동에서 배워보는 거죠. 도시인이 산촌 체험을 경험해 본 후,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해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따듯하고 행복한 공간으로, 목인동이 성장하기를 기대해봅니다.
천천히 흐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는 목인동 슬로우 레지던스! 어떤가요? 한 번 놀러 오고 싶지 않으세요?



막막한 당신을 위해

산림조합

① 산림조합의 산림과를 방문하세요
· 최신 경영 트렌드를 알 수 있어요. 전문 재배인들을 소개 받을 수 있고요. 복합 산림 경영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답니다.

② 귀농 교육을 받아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대학, 천안 연암대학 귀농 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귀농 대학 코스를 밟아보세요. 작물과 희망 분야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서두르지 말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생각한 대로
느끼는 대로



● 매실나무

안녕하세요. 매실나무예요.
봄이 오면 톡톡 터지는 꽃들로 여러분에게 다가가죠.
그러면 저는 매화나무가 돼죠.
같은 나무인데도 이른 봄 꽃을 피우면 매화나무가 되고
여름에 열매를 맺으면 매실나무가 돼죠.
저의 참모습을 꽃으로 본다면 매화나무로
저의 가치가 열매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매실나무로 불러주세요.
사실 나무에 톡톡 틔우는 꽃과 비견할만한
제 매력은 향기에 있답니다.
이른 봄에 피어난 꽃의 진한 향기는 사람들을 매혹 시키고,
몸속까지 스며들어 싱그럽게 만들어 주거든요.
자, 이제 아트테라피를 따라 한 잎 한 잎 색칠해 보세요.
어떠세요? 제 향기가 느껴지시나요?

과명 장미과 **학명** ***Prunus mume*** **Siebold & Zucc.**
분포지 우리나라에 널리 식재 **개화기** 2~3월, 백색 또는 흰색
결실기 6~7월, 녹색에서 황록색으로 익음



색연필, 마커, 펜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개성있는 나만의 매실나무를 보여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2016년 1+2월호 독자 의견

산림청 〈MAGAZINE 숲〉은 독자 여러분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갑니다.
〈MAGAZINE 숲〉을 읽고 난 후 인상 깊었던 기사에 독자 엽서, 이메일(magazinesup@korea.kr)로 의견을 보내주세요. 매 호 여섯분의 독자 의견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강진 여행을 다녀오긴 했었는데, 동백나무와 백련사 그리고 다산초당까지…. 얽힌 이야기가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혜장스님과 정약용 선생님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어요. 다시 한 번 정약용 선생님의 유배지를 다녀오고 싶어서, 여행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예섭_서울



후대에 빛나는 업적을 남기신 정약용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유배지에서 수많은 저서를 남기실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집념이라는 원동력이 작용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더 정약용 선생님이 남기신 훌륭한 가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창재_경기도 용인시



해외 여행의 경험이 없어요. 몽블랑을 담은 사진을 보니, 마치 그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진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김희용_경기도 수원시



6차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산머루농원의 6차 산업을 이루기 위한 경험을 읽을 수 있어서 무척 유익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과 농·산촌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해준 것 같아요.
김동현_경기도 구리시



평소에 칡을 잘 먹는 편은 아니에요. 주로 칡차로 먹는 것 말고는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칡과 다른 약재를 함께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칡이 우리 몸의 중금속을 해독하고 분해하는 좋은 효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순민_서울



이용길 씨가 산촌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진솔하게 표현해 주셔서 감동적이었습니다. 산촌에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산촌 일기를 읽으면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네요.
정재윤_경남 하동

